**표지:**

안녕하십니까?

지원이 필요한 지원팀 정지원 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검색창에는 “특정분야 인재 또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라고 나와있지만 현실은 공무원 쉽게 되려고, 공부는 못하지만 괜찮은 대학 쉽게 가려고, 등의 정책적 “당근”을 노리고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진로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민감하고 까딱 실수했다가는 고등학생 3년동안 아무것도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외노자랑 같이 공장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이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또는 특성화고 진학을 염두한 중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석을 준비해 보았고,

앞으로 약 5분간 진학 잘되는 취업 잘되는 학교가 갖춘 요소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이 발표의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주제의 선정배경을 알아볼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통계학으로 끌어와서 분석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막연했던 인상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집과정과 전처리에 대해 잠깐 소개할 것이고요

2가지 방식의 분석 결과를 알아볼 것이고

탐구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제 및 선정배경:**

최근 코로나19로 야기된 산업구조의 변화로 좋은 취업자리를 노리는 특성화고 학생들과 저렴한 인력을 원하는 중소기업과의 미스메칭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 교육환경에 불안이 심화됨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튀는(방탄소년단 같은) 인재가 나온다기에 이 분석을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미래는 안정된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불안하지 않게 해주려고 분석 했다는 것이고,

**사회문제를 어떻게 통계학으로 끌어왔는지**

정의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통계학으로 끌어왔냐?

저는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높은 취업률과 진학률로 정의했고

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았던 막연했던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넣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편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제가 갖고 있었던 막연했던 인상들이 보이실 겁니다.

학교주위 환경(부동산 지수 변화량), 교내적 요소(교사 성비, 학생당 교사 수),

이제 주관에서 객관을 도출하기 위해 어떤 통계학을 이용할까 고민했는데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계량화 하고, 평균비교를 통해 특징을 뽑아보았습니다.

**수집과정과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HIFIVE의 학교별 학과정보, 초중등 정보공시데이터, 부킹-아파트 구별 평당가, 월간 매매가격지수 종합, 도서관 이용 현황을 활용해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의 수는 475개 였으나 공시 부족, 비 정상적 사건 등의 사유로 448개교만 분석함

세종, 강화, 전라남도 등의 주소가 행정구 변환이 되지 않아 뽑아올 데이터 테이블의 행정구를 바꿔서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다가 어이없는 (지금 보면 웃음만 나오는 실수를 했는데) 비율 구하는 과정에서 분모에 0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 좀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결론:**

진학과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자가 많은 학교는 취업자 수와 진학자 수가 많지 않았다.

학생당 여교사의 수와 교사의 성비는 취업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50% 이상의 진학률을 보이는 특성화고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부동산 평당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ICT관련 특성화고 졸업자들은 취업보다는 진학을 많이 합니다.

분석 결과가 안정된 교육환경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분석은 시기별, 지역별 산업 및 대학의 상황과 교사 개개인의 특징,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의 의도 등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에 반영할 만큼의 신뢰 있는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학생주위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